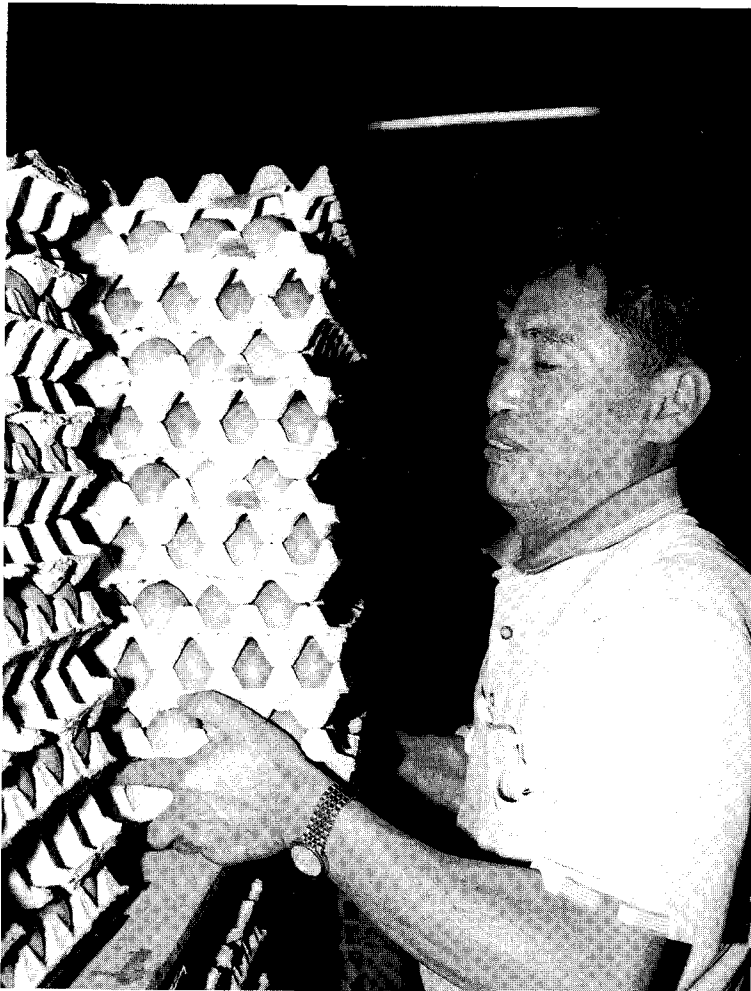


채란계 흑서기 준비 현장 - **금강농장**

소비자를 위한 마음으로 계란을 생산해요



일찍 찾아온 더위에도 불구하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생산에 여념이 없는 송봉순 사장

6월 중순, 이미 외부온도가 30℃를 훌쩍 넘어서면서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 4만수의 산란계(A형 4단 개방계사, 2동)를 경영하고 있는 송봉순(금강농장, 44) 사장과 직원들은 계란 이송벨트를 타고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계란을 선별하느라 여념이 없다.

AI 이후 난가가 높게 형성(특란 109원)되면서 다른때보다도 손놀림이 가볍다. 28주령에 산란율 90%를 보이면서 피크를 향하고 있는 닭들이 대견스러울 따름이지만 한 켠에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사료가격과 비수기 철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혹서기 풍향조절 효과 커

송사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채란업계의 장기불황이 이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지만 그런 여건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기하면서 겨우 현상유지를 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는 병아리를 직접 육성하면서 국내에 찾아온 AI발생에 마음을 줄이기도 했다.

송사장은 금년에 10년만의 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보도에 걱정이 앞선다. 때문에 농장에서는 혹서기에 대비한 준비가 한창이다. 닭이 더위를 먹으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사 1동의 천장에 12개의 대형 환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금년에는 취약지점에 추가로 환을 설치하였고, 온도에 따라 환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35℃가 넘으면 닭들에게 직접 바람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또한,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장마철 습도가 높을 때의 계분처리이다. 아직도 계분시설이 충분치 않아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민원발생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환경을 배제한 양계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금강농장의 경우 계분이 계분장에 쌓일 겨를이 없다. 인근에 민을 수 있는 비료업자에게 월정액의 돈을 지불하고 처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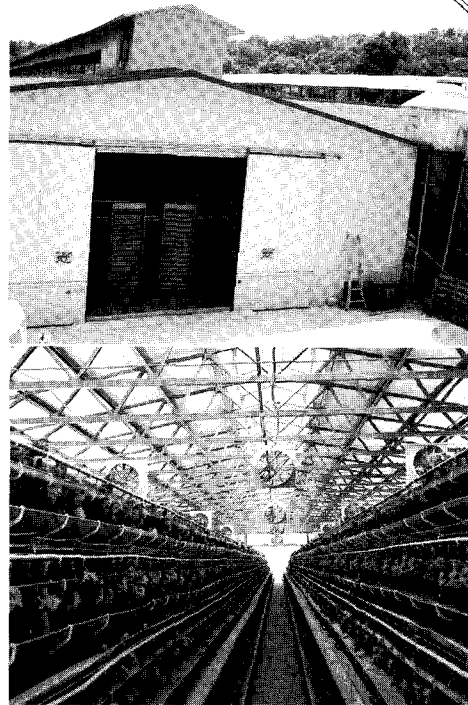
후장기 병폐 사라져야

송사장은 농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이 계란유통구조라고 강조하였다. 계란유통구조가 너무 취약하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특히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후정산 제도(일명 후장기)가 사라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강농장은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P가공업체에 고정적으로 납품하면서 바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양계조합에 등급관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상인들과 거래할 때처럼 체화되는 적은 없으며, 계약에 의해 서로 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상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해주는 것을 제일로 삼고 있다.

사료를 충분히, 고르게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사료를 최대한 충분히 주되 고르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모든 닭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료가 거의 바닥을 보였을 때 급이를 하여 균형적인 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송사장은 과거 종계 육종과 수입을 담당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채란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양계컨설팅으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리 | 김동진 차장) 



30도가 넘는 날씨, 문을 개방하고 환을 풀가동시키며, 혹서기에 대비하고 있다.(금강농장 외부(상)와 내부광경(하))